



◆ 푸른 소나무는 솔잎혹파리 방제로 지켜요!

홍천국유림관리소, 솔잎혹파리 방제 한창
최근 이상기온 등으로 돌발해충이 발견되고 있으나 돌발해충의 경우에는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병해충방제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 6. 8 ~ 7. 17일까지 솔잎혹파리피해에 대한 솔잎혹파리방제(나무주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오는 8월말까지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방과 효율적인 방제를 하고자 추진 중이다.

산림병해충방제대책본부에서는 6. 8일부터 솔잎혹파리피해지역인 고속도로·국도 및 국립공원지역 등 250ha에 대하여 솔잎혹파리방제(나무주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솔잎혹파리는 생태적으로 피해지에 대한 방제적기를 놓치거나 누락되면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솔잎혹파리 우화최성기인 6월에 모든 방제인력 및 방제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6월말까지 완벽하게 방제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대상지에 솔잎채취 등을 금지하기를 당부하고 있으며 산림병해충 발견시에는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3-7704)로 신고를 당부하였다.

●문의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문식 (033-433-7704)

◆ 숲에서 만난 기초지자체와의 어울림!

제 7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가 6월 14일(목), “정신문화의 수도 경북 안동”에서 열린다. 역대 최고인 107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산림

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회의 주제는 「숲! 새로운 가치 창출」로 숲에서 얻는 경제적·사회적·생태적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산림소득개발에 대한 사례를 얻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산림연찬회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경상북도가 주관토록 하여 산림청과 지자체간의 협력 증진과 공동축제의 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

산림청의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를 위한 소개의 시간 이후에는 인제군의 “하늘내린 인제 가치최고의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 증평군의 “수(水) + 수(樹) 조화되는 증평”, 고성군의 “도로변 수목정비사업”, 임업후계자 박행규씨의 “산에서 부(富)를 창출하자” 등 각 지자체와 임업후계자의 성공사례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연찬회를 통해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초지자체장들의 산림정책에 대한 이해와 산림청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문의 :산림청 숲가꾸기팀
제경영 팀장(042-481-4186)

◆ 산림청, 중부지방 「소나무류 가지마름병」(가칭) 확인

-38개 시군구 잣나무 24천본 피해-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금년 봄부터 중부 내륙지역(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5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잣나무 24천본이 고사되어 역학조사한 결과, “피목가지마름병균”의 불완전세대인 병자각을 최초로 확인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병이 유럽과 미국 등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스클레로테리스가지마름병”의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스클레로테리스가지마름병”에 감염된 후 2차로 “피목가지마름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판명하기 위하여 병원균의 분리·검사를 진행중이며, 자세한 결과는 8월말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두가지 병을 통칭하여 가칭 “소나무류가지마름병”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산림청은 지난해까지 쇠약해진 잣나무에 일부 발생하였던 “피목가지마름병”이 금년 봄에 급속히 확산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만약 “스클레로테

리스가지마름병”에 감염된 후 2차로 “피목가지마름병”에 감염된 것일 경우에는 전국의 잣나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긴급방제 예산을 투입하여 7월까지 긴급 방제하도록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산림병해충의 발생·피해 징후 포착을 위한 예찰·진단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하고 연구와 병행하여 친환경 생태적인 방제방법을 다양하게 발굴·개선하여 직접적인 약제방제에 앞서 간접적인 임업적 예방방제(간벌, 숲가꾸기, 비배관리 등)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팀
이상인 사무관(042-481-4269)

◆ 멸종위기 특산식을 참골담초 자생지 발견



▲참골담초

멸종위기 희귀 특산식물인 『참골담초』의 국내 자생지가 최초로 발견되었다.

콩과의 낙엽성 소관목인 참골담초는 재배하는 골담초와 유사한 식물이며, 자생지내 개체수가 20본이며, 면적이 25㎡ 내외로 매우 협소하고 생태적으로 크게 피압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보존대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멸종위기 희귀 특산식물인 참골담초(*Caragana koreana* Nakai)의 자생지가 최근에 국립수목원 특산식물 보존연구팀에 의해 강원도 지역 2곳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참골담초는 황해도와 평안도, 강원도에서 아주 드물게 자란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남한에서 자생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골담초는 매우 귀한 식물로서 일부 도감에 분포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알려지지 않은 식물이다. 자생지중 한곳은 개체수가 약 20본, 다른 곳은 약 10본으로 면적도 협소하고 개체수도 적어 멸종위기에 처한 상태이다.

콩과의 골담초屬(Genus *Caragana*)은 우리나라에 3종이 분포하는데, 참골담초와 좁골담초(*C. fruticosa*)는 자생이지만 골담초(*C. sinica*)는 중국원산으로 약용으로 재배하고 있다. 참골담초는 소엽의 수가 4-6쌍으로 좁골담초 6-10쌍보다는

적고, 골담초 2쌍보다는 많으며, 꽃자루의 길이가 3-4cm로서 두 종에 비해 훨씬 길다. 그리고 줄기의 가시는 골담초 보다 훨씬 짧고 부드러우며, 잎 또한 윤채가 없고 부드럽기 때문에 쉽게 구별된다.

종자에 의한 유성번식을 주로 하지만 자연적으로 뿌리에 의한 무성으로도 번식한다. 높이가 1~1.5m까지 자라며 꽃은 4월에 피고 열매는 9~10월에 성숙한다.

현재 참골담초는 개체수가 너무 적어 유전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또한 생태적으로는 키가 작은 나무로서 자생지가 계곡부의 낮은 산록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변에 물푸레나무와 피나무, 느릅나무, 고로쇠나무 등의 키 큰나무들에 의해 크게 피압되어 있어 도태되어 절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절멸위기에 처한 특산식물 참골담초의 자생 집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생지의 보호와 피압된 개체목들의 생육환경 개선, 무성 및 유성증식에 의한 현지내 복원과 현지외 보조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 :산림청 국립수목원 식물보존과
강우창(031-540-10)

◆ 아까시나무 보다 꿀 생산량 2배 많고, 약리효과 우수한 ‘헛개나무’ 신품종 개발

-산림청, 2010년부터 일반농가에 보급예정-



우리나라 벌꿀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밀원(蜜源)수종인 아까시나무가 노화, 황화현상 등으로 쇠퇴하면서

매년 벌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아까시나무 보다 꿀 생산량이 2배 많고 유용물질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새로운 밀원수종인 헛개나무 신품종(풍성 1, 2, 3호)이 개발되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정광수) 특용수연구팀이 지난 10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헛개나무’ 신품종은 1997년 강원 속초, 양양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개화 및 결실량이 많은 헛개나무 64개체를 접목 증식하여 육성한 새로운 밀원 수종으로 국내 양봉농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벌꿀생산량 - 아까시나무의 약 2배(6년생 1ha에서 153kg 생산)

※ 항산화활성, 미백효과, 요산생성억제효과 등이 '마누카' 꿀보다 우수

산림청은 이번에 개발한 '헛개나무' 신품종을 유전적 안정성 검정을 위한 농가 시험재배와 대량 증식 기술개발을 통해 오는 2010년부터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본격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6월25일 수원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에서 「아까시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밀원 수종」이란 주제로 현장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문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정현관, 김세현 박사
(031-290-1189~90)

◆ 매실에서 처음으로 스쿠알렌(Squalene)물질 발견

-GC/MS를 이용한 기능성 생리활성 물질 존재 확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정광수)은 국내에서 생산된 매실과육에서 처음으로 고기능성 생리활성 물질인 스쿠알렌(squalene)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GC/MS-SIM을 이용한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통해 7.6ppm 이상의 스쿠알렌(squalene)이 매실과육에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스쿠알렌(squalene)은 식물체 가운데 살구씨(행인), 복숭아씨(도인) 등에서 확인된 보고는 있으나 매실과육에서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스쿠알렌은 1906년 상어 간유에서 처음으로 그 존재가 보고되었고 1935년 비로소 화학구조가 밝혀진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유망한 물질이다.

스쿠알렌은 체내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신장과의 기능증진, 시력향상, 피부의 수분유지, 상처회복, 기억력 증진, 스트레스 감소, 콜레스테롤 제거, 고혈압, 심장질환 예방, 당뇨, 지방간 및 관절염 등에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확장

품과 의약품의 기초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한편 매실은 매화나무 열매로 예로부터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약재나 식음료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매실은 한방에서 당뇨병 치료, 구충제, 해열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고혈압, 설사, 정혈작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성과는 매실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농가와 매실을 가공하여 식료품을 제조하는 관련기업에 커다란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더욱 각광을 받는 건강 증진 식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이학주, 강하영, 조현진 박사
(02-9612-760)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시행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사업이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토록 하는 등 수목원조성 사업을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부실 또는 지연사례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한 수목원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주 5일 근무 등 증가하는 국민휴양 수요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과목·교육시설 등 인증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자를 수목원전문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한편,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식물의 분류·명명·등록 및 식물목록 작성에 관하여 투명성을 확립하고 표준화된 식물목록을 제공하는 등 국립수목원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요약)
<법 률>

- 수목유전자원 목록작성 등 국립수목원의 사업
을 법률에 상향
- 수목조성계획승인시 사업계획의 구체성, 입
지여건 등에 관한 검토규정 신설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
(시행령)
-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 신설
 -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작성기준(학명목록,
국명목록)
- 수목원조성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검토기
준 신설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사업목적, 소
요예산, 자금조달방법 등
 - 입지여건등의 적합성 : 예정지 면적, 부지
확보(계획)의 적합성 등
 - 전문인력확보 계획의 적정성
- 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에 수목원전문가 교
육과정을 이수한자를 추가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기준 신설
 - 교육시간 : 이론(360시간), 실습(960시간)
및 교육시설(강의실 등)
- (시행규칙)
-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위
원회”를 구성·운영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절차 등
- 문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팀
이순욱 사무관(042-481-4241)

◆ 백합나무 심은 후 생육상태, 전문가 자문 받아

-백합나무 조림지 현장세미나, 2007. 7.
10(화), 용문양묘장

백합나무 조림이 확대됨에 따라 양묘 및 조림을
위한 현장 전문가 교육이 한창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최근 나무심기 면적이 확
대되고 있는 백합나무에 대하여 숲가꾸기 담당 공
무원,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2007. 7. 10(화), 「백합나무 조림지 현장 세미나」
를 개최한다.

백합나무(학명 : *Liriodendron tulipifera*, 영명
: Yellow popla)는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등의 대체 경제수로 심기 시작하여 최근 경제성, 성

장속도가 높은 수종으로 각광을 받아 백합나무 조
림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백합나무는 황록색의 재색과 독특한 수피를 지
니고 있어 공예용재로 개발할 잠재적 가치가 높고,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간벌재도 경제적이
로 활용될 필요가 높은 나무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2002년에는 백합나무 조
림 1ha에서 점차 나무심기 면적을 확대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총 나무심기 면적 302ha 중 백합나무
는 67ha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개최하는 「백합나무 조림지 현장 세미나」
는 나무심기 면적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숲가꾸기
담당자들이 백합나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숲가꾸기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세미나를 통해 관리소(춘
천·홍천·수원·서울)별로 나무심기 후 백합나무 생
육상태에 대해 전문가의 기술자문도 받을 계획이다.

● 문의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차주봉(033-738-6231)

◆ 제4회 아름다운 산림 사진 콘테스트 공모전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제4회 아름다운 산림사
진콘테스트”를 위한 사진 공모전을 붙임과 같이 하
고 있습니다.

’07.11.20일까지 사진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출품 수량에 제한이 없으며 일반사진, 디지털 사
진 모두 가능하며 우리 북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와 춘천, 양구, 인제, 홍천, 수원, 서울 국유림관리
소에서 접수합니다.

◆ 산림에 쓰레기 버리는 행위 집중 단속

-인제국유림 방태산 계곡 등 특별단속 실
시-

8월 한달간 산간 계곡에서 쓰레기 버리는 행위와
무단취사 행위 등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
속이 실시된다.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는 6개반 56명으로 특
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인제군내 산림계곡 곳곳에서
쓰레기 버리는 행위와 무단취사행위 및 산림정화보
호구역에서 수목의 불법 굴·채취 행위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별 단속에는 인제군 산림보호 시민연대(회장 이지형)와 합동으로 산림정화캠페인을 병행 실시하며, 이들은 늘어나는 산림속의 여가문화를 건전하게 활성화 하고자 단속위주 보다는 홍보를 통하여 산림휴양문화의 정착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국립수목원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홍보용 현수막 20여점을 제작 산림정화 보호구역 요소요소에 설치, 단속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해소키로 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산림에서는 지나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숲에 대한 예절이라며, 우리 모두 숲 환경 지킴에 함께 하는 선진 시민정신이 필요할 때라 하였다.

● 문의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김호중(033-463-8169)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책임운영기관 첫해 우수기관 선정

전국의 32개 국유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성부근)가 고객속으로 들어가는 고객중심의 업무처리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노력 등이 높이 평가되어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 첫해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저력을 발휘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가시간 및 소득의 증가로 급증하는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체경영진단을 통한 직제 개정, 권역별 주무팀제 도입 등 운영조직을 고객중심의 경영체제로 전환하고, 자연휴양림별 경영모델 개발·운영, 찾아가는 숲해설 실시 등 국민이 숲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기존의 음주·바베큐로 대표되었던 산림휴양 문화를 다양한 체험위주의 산림휴양 문화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ISO 9001/14001 동시인증으로 각종 운영절차를 환경친화적으로 표준화하고, 자연휴양림 시설물을 신체 장애우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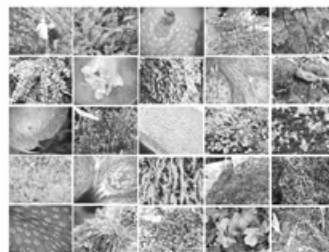
있는 계기로 만들었다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밝혔다.

앞으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누리는 산림정책」실현과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휴식 및 체험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 등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유연수(042-580-5516)

◆ 국립수목원 “한국 선대식물 목록집” 발간

2007
한국 선대식물목록
New List of Bryophytes
in Korea



국립수목원
KOREA NATIONAL ARBORETUM
KOREA FOREST SERVICE

▲ 한국 선대식물 목록집

새로 발견된 신종을 포함해 선대식물목록이 27년만에 업그레이드돼 발간되었다.

이번에 발간된 선대식물 목록집은 1980년 한국선대식물도감에 691종류가 정리된 이후 27년만에 재정리한 것으로 한반도에 선대식물이 950종류가 분포한다

는 것이 새로이 밝혀지게 되었다. 선대 식물의 가치는 생물종 다양성과 생태계 유지 측면을 떠나서 지구환경의 지표식물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식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고등식물인 관속식물에 관한 연구논문, 도감, 목록은 많이 나왔으나 상대적으로 선대식물에 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결과가 대단히 미약한 실정이었다. 이번 선대식물 목록집 발간을 시점으로 한국의 선대식물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목원 박광우 산림자원보존과장은 본 선대식물목록 출판도 하등식물표준화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향후 현재 진행 중인 삽화작업이 완료되면 선대식물지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